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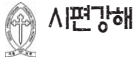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왕의 혼인

(시 45:1-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시편 45편은 시편의 다른 시와는 전혀 다른, 매우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왕의 혼인을 준비하는 시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 시입니다. 본문의 왕에 대해 어떤 주석가들은 솔로몬 왕과 애굽 공주의 결혼일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솔로몬과 드로의 공주, 파사 왕과 그의 신부인 요달과 아달리아, 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적 왕인 것을 말씀합니다.

고대에서는 약혼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약혼을 하면 육체적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로 부르고, 파혼 시에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혼식 날 여자는 가장 좋은 옷과 장신구로 단장 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자기 집에서 하객들과 모여 있다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신부 집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이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면서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는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한 주, 또는 두 주 동안 신랑의 가문과 신부와 부의 정도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집니다.

본문 2-9절은 신부를 기다리는 왕, 10-12절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주는 충고, 13-15절은 신부가 왕에게 이끌려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인의 결혼과 부부의 연합에 대한 개인적 축복의 내용입니다.

### 1. 왕께 드리는 찬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썽짜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1절).

시인은 능숙한 필적처럼 왕의 결혼을 입으로 표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은 지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왕께 드리는 찬가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왕 중 왕께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절을 ‘내 가슴이 영감 된 말로 흘러넘친다’라고 번역합니다. 신랑 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는 의미로 왕의 아름다움, 왕의 능력, 왕의 덕, 왕의 위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2절)는 왕의 내면적 미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외모는 보잘 것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아름다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운 품성을 가지셨습니다(4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요 7:46)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떠나매 열 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 6:68)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주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왕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3절은 왕의 능력과 영화를 노래합니다. 왕이 칼을 허리에 차고 열방을 위협하는 모습은 영화와 위엄에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칼은 말씀의 검입니다.

결혼하는 왕의 의복들은 아라비아산의 몰약, 인도산의 침향과 육계 등 고귀한 향료이며 왕궁은 상아로 장식되고 연회는 현악으로 즐겁게 합니다. 상아궁은 솔로몬의 궁으로 사치하고 화려함의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과 메시아 왕국의 즐거운 모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6절).

이 말씀은 메시아적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절에서는 결혼식의 신랑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7절에서는 다시 사람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2. 신부에게 보내는 충고

만일 신부가 잘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인은 왕후에게 자기 나라와 친정집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10절), 남편인 왕만 주로 섬기라는 것(11절), 그리고 왕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12절)을 충고합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지금까지 세상에 충성하던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11절의 경배하라는 말은 허리를 굽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장엄한 사랑관계에서 생기는 것으로 신랑에 대한 존경심이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자세와 같습니다.

시인은 왕의 사랑, 왕과의 관계를 통해 신부에게 주어질 영광, 왕과 함께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신부의 미래로 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신부에게 미래를 내다보라고 합니다.

### 3. 내가 곧 오리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 로다”(16절).

왕의 자손이 왕위에 계속 오를 것이며 그 왕위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도 그와 더불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영적 배우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처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 오실 때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오늘 개강

결혼예비학교 / 세계선교대학 / 교사양성반 / 교구일꾼 양성반 / 찬양대양성반  
-사무국으로 신청토록-

2007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오늘 결혼예비학교(12시 30분, 903호)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강한다.

이번 열린프로그램은 오늘 제8기 결혼예비학교가 먼저 개강하고, 제5기 세계선교대학(3월5일), 교사양성반과 교구일꾼양성반, 찬양대양성반(3월 11일)이 차례로 개강한다.

나머지 열린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마리아 학교(새 세대 부모학교) 등 4강좌는 4월 9일 개강한다.

결혼 예비학교는 5주 과정으로 결혼을 앞둔 커플들, 신혼부부,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교회에서 결혼예식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세계선교대학은 3월5일(월)부터 10주간 세계선교를 위해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강의 한다. 특

히 이번 여름, 이스라엘 단기선교에 참여할 성도들은 필히 세계선교대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사양성반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본 교사양성반을 이수한 성도들에 한하여 교사자격을 드린다.

교구일꾼양성반 역시 각 교구에서 일꾼으로 봉사할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찬양대양성반은 7주 과정으로 박정선 장로(단국대 음대 교수)의 지도로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초를 배우게 된다.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의 등록비는 과정별로 10,000원씩이다.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개강

3월 5일(월) 606호실에서

우리교회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청소년들을 위하여 개설한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2007년 과정이 3월 5일(월) 개강한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은 일 년, 3학기제로 매 학기 10주 과정으로 방과 후 교실로 606호에서 진행된다.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은 삶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청소년들이 북한과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겪는 신앙

및 사회정착과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돕고 중·고 대학과정의 원만한 학업 이수를 위해 국내 우수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직접 가르치며 섬기게 된다. 우리 서울교회가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역군으로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한 수많은 일꾼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서울교회의 면류관

은기장 집사(13 교구)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서울교회 스테반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처음 맞는 스테반회 수련회에 기대감과 설렘으로 참여하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은 내 안에 나

는 주님 안에 거하는 뜨거움을 체험하였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말씀은 송이꽃처럼 달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마지막 때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공의가 무엇이며,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상숭배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로 호흡하며, 회개로 죄를 끊고 결단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김재진 목사님 특강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사의 자세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일꾼되고 순종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참모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련회 후, 구국기도회에 참여한 스테반회는 행동

하는 이 시대 믿음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상을 보았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만

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이 시대의 기도 역군으로 우리 스테반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교회 스테반회 공동체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 지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 기도의 역군 스테반회!

## 제3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시작 -3월5일(월) 발송작업-

오는 4월9일(월) 개강하는 제3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가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감: 민순구 장로)은 3월5일(월) 봉사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3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안내 브로슈어와 수강신청서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본 교단의 기독공보를 비롯한 교계 대표 신문 6곳에 매주일 한 곳씩 게재돼 전국 각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3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여 목회자들이 먼저 은혜받고 교회가 갱신되고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 교구별 일제 심방 시작

금주부터 각 교구별로 담당 교역자들의 일제 심방이 시작된다. 심방을 받는 성도의 가정은 미리 교역자들과 연락을 하여 심방받는 날짜를 조정하고 가정의 기도제목을 미리 알려 함께 기도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 24기 단기전도학교 수료자

24기 단기 전도학교가 수료하였다. 단기전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은 반드시 전도를 하여야 수료증이 발급되므로 열심히 전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수료자 명단>

고후덕 김병호 김수경 김인순 김재진 김혜련 김효진 김희동 박준희 배옥선 송지윤 송행희 안지훈 안태준 양득춘 우지원 유묘종 이남성 이민화 이성애 이영희 이인숙 이종미 임인자 장인원 전원순 최근자 최금자 최영란 홍건표 홍하연 총 31명

### 금주의 성구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 붙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1-3)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those of my own race.

(Romans 9:1-3 [NIV])

민민에게 전도 -애국과 구국

# 나라 사랑 - 3월의 소리

1919년,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통치 아래 수난을 겪어야 했던 민족을 일깨우고 항일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3.1만세운동이 올해로 88주년을 맞이했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이 운동은 당시 제국주의 열강 하에 신음하던 많은 약소국들과 세계사의 새로운 질서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3.1만세운동에서 그 핵심종주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당시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당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이승훈, 박희도, 오화영, 최성모, 이필주,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신희식, 정춘수, 이갑성, 김창준, 박동완, 신석구 등 16명의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월남 이상재, 단재 신채호, 유관순, 안중근, 조만식, 백범 김구, 안창호, 서재필, 이준, 김교신, 이승만, 장준하 등의 기독교인 독립투사들이 이 운동을 전후로 일제에 대항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상적 공백과 이념적 사분오열이 있었던 당시 사회를 하나로 연합하며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을 불문한 거족적인 민족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된 이 운동은 기독교인 지도자들 뿐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거점으로 한 평신도들의 활약으로 이어졌으며, 해외의 독립투사들은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되 비폭력운동을 지향한 이 운동을 국제 사회에 알리며 세계의 여론을 움직여 나갔다. 당시 전국적으로 피검된 목사의 수가 242인에 달하고 이 운동에 대한 일제의 참혹한 보복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구국의 선봉에 섰던 기독교인들은 고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속한 시대의 사명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평화로운 조국 건설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 기독교인들이 3.1만세 운동 중추적 역할



▶ 1919년 3.1 만세 운동 장면

난공불락의 여러고성을 함성만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3.1만세운동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같이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선진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허락하심과 그 선하신 계획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국가로 머물러 있으며 불신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난국의 정세와 타락한 세태를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3.1만세운동의 정신과 이에 동참한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특히 평양 대부흥 100주년의 해로, 이제 명실상부한 복음의 산실이 되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한 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합당한 일꾼 되기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구원할 수 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나소정(편집부)

시순절 단상

# 부활의 복음

이종윤 목사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의 적들에게는 무서운 선고장이 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자 크게 당황했다. 십자가가 곧 예수의 종결이며, 무덤이 곧 자기들의 개선탑이라고 착각하고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예수를 그들은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기만 하는 소식이다.

\* \* \*

부활의 소식은 택함받은 이들에게는 영광스런 초청장이 된다. 모든 사람을 끌어 모으는 힘이 되어 도망친 제자도, 십자가 밑에서 비판과 방관만 했던 배신자들도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한다.

부활은 죄의 사면이요 구원의 확증이며 불의의 패망이고 진리의 승리이며 사망의 사망이고 생명의 개개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복음은 나도 당신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강한 引力인 것이다.

\* \* \*

부활의 메시지는 믿는 성도에게는 엄숙한 임명장이 된다. 부활을 보고 듣고 믿는 이는 이를 전하라 하였다. 목격자로서 함구할 수 없어 베드로도 다른 사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왔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향한 초청장이 되도록 하자. 그 앞으로 끌려 나가 임명장을 받고 증인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선고장이 된다.

“부활의 복음을 홍보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천국일꾼 양성-재녀를 위한 기도

안성의 집사(9교구)



딸아이 지수가 유치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한 아름 받았습니다. 그 꽃다발을 정리하면서 향기가 진한 장미를 몇 송이 골라 예쁜 꽃병에 꽂아 지수의 책상위에 올려놓았

습니다. 이 꽃의 주인공인 지수가 초등학교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어제와 오늘 잠시 생각에 잠기게 하는 두 기사를 접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年 1,800만원 명품유치원 성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명품유치원은 영국 등 선진국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도 모두 영국산이

라고 하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비슷한 호화유치원이 강남에만 2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린이 정신과 치료 열풍'이라는 내용입니다. 강남 일대를 비롯한 일부 부자동네 정신과에는 과잉 학업스트레스성 학습장애, 시험불안, 학

## 명품 크리스천 가정이 되기를...

습거부 및 주의력 산만 등으로 학업관련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로 방학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이러한 원인은 대개 사교육 열풍에 따른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옳은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성경공부와 기도보다는 영어

공부와 학원수업을 강조하는 믿음 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우선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세상흐름의 맞추어 수시로 세상적인 학습법을 시도하고,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돌아서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수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명품 학원을 찾기 전에 명품 크리스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에게 최고의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지수가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쁜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일꾼 양성

# 지난 주간 서울교회 사역들

## 1. 대한민국 지키기 · 친북 반미 좌파 종식을 위한 -3.1 구국기도회



## 2. 공군사관학교 제55기 졸업 및 임관 감사예배 : 2월27일(화) 공사 성무교회에서



## 3. 교육1국 겨울성경학교 : 2월23일(금)-24일(토)



## 4. 제2회 호산나 학교 입학식 : 3월2일(금) 웨스트민스터홀



### 푸른 초장

올해는 \_\_\_\_\_

· 성경 - 1독 이상

· 전도 - 1인 이상

### 찬양예배 특별 순서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안산 및 안양시립 합창단원을 중심으로 한 독창과 중창으로 준비된다.

여성 3중창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M. Mendelssohn)를, 테너 독창으로 축복하노라(신상우)를, 혼성 4중창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노래 (Allen Pote) 외 1곡을 하나님 앞에 들려 드린다.

오늘 출연자들은 김정희 집사(소프라노,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한국예술 종합학교 겸임 교수), 이원경 (소프라노, 안양 시립 합창단원), 박지나 (알토, 안양 시립 합창단원), 이혁재 (테너, 안산 시립 합창단원), 정동호 (베이스, 서울대 음대 대학원 재학), 박은화 (Piano, 안산 시립 합창단 반주자)선생 등이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0일(토) 한국장로교신학회 10회 논문발표회를 소집한다.
- 특남 : (10교구) 박병욱 조혜영 집사 가정
- 개업 : 오애연 성도(13교구) 파코메리(피자와 스파게티) 대치2동 T. 563-9205  
3교구 하인선 집사 동서 요양병원 6일(화) 정오 개원 예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Tel: 031-246-7250~2
- 이사: 조현인 집사, 신인순 집사(1교구) 대치동 개포우성@1-1207
- 주간식당 봉사: 권사회(3.4) 빌립선교회(3.11)
- 금주의 식사 : 이동만 집사 이은자 집사/ 하봉식 성도 주화인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친북, 반미 · 좌파 종식을 위하여

### ■ 교회오시는 길

